

다윗과 요나단 –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

사무엘상 18:1-9 및 19:1-7

서론:우리 위대한 구원자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은 브라이언이며 윌링던 교회에서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다윗의 삶에 대한 여름 설교 시리즈에 참여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성경 봉독을 통해 짐작하시겠지만, 오늘은 다윗과 요나단의 놀라운 우정에 집중하려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우정의 본보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우정'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친구'라는 단어의 피상적인 정의를 메리엄-웹스터 사전에서 확인했을 때 더욱 그러했습니다.

- a. 애정이나 존경심으로 연결된 사람
- b. 아는 사람
- c.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
- d. 같은 나라, 정당, 혹은 집단에 속한 사람

정말 이게 전부인가요?! 저에겐 이런 정의들이 매우 빈약하게 느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준 우정은 훨씬 더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관계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을 우리의 인간관계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우리의 인간관계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대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친구를 허락하신 적이 있나요? 깊은 고난이나 큰 변화, 심각한 아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관계를 통해 우정에 대해 무엇을 배웠나요?” 그런 축복을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요나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진정한 친구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가장 그를 필요로 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희생적인 사랑과 굳건한 충성으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요나단은 그들의 우정 속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진정한 하나님 중심적 우정의 본질과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잠언 18장 24절의 말씀을 잘 보여줍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가까우니라.”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묘사하는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절들에서 핵심 개념을 풀어내기 전에 사무엘상 20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의 시작에서 다윗은 요나단에게 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를 묻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왜 사울이 아직도 나를 미워하냐?”는 질문입니다.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놀라지만, 곧 상황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계획에 동의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며칠 동안 열리는 유대인의 절기에 초대되었지만, 사울과 마주치기를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불참을 위한 변명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사울의 반응을 통해 그가 다윗에게 선의를 품고 있는지 악의를 품고 있는지를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들의 관계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상황이 정말 ‘진지해진’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요나단에게 “네 아버지가 분노하면 누가 나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만약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요나단이 직접 자신을 죽이라고 까지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네 손에 맡길 수 있을까? 널 믿을 수 있을까?”

그다음 구절들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11-17

- 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 12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피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네게 알리지 않겠느냐
- 13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네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 14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와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 15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 16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 17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화살을 이용한 신호 체계를 함께 계획하여,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다윗에게 알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자 다윗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사울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그는 둘째 날까지 기다렸다가 요나단에게 질문했습니다. 요나단의 대답은 사울을 격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왕은 요나단을 조롱하고, 그가 왕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옹호하자, 사울은 그를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권력욕은 그를 거의 살인 광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뢰는 이로써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고, 그는 선택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신 인물이며, 요나단은 그를 충실히 섬기기로 결정했습니다.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요나단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축제 둘째 날 그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한 대우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이 슬퍼하는 행동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확실히 인지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적으로 한 맹세를 공적으로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음 날, 두 친구는 눈물 어린 재회를 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 한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 후 그들은 직접 만나 함께 울며 서로의 우정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짧은 한 번의 만남을 제외하면, 이것이 그들이 생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맥락을 생각해 봅시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배운 것을 보면, 다윗은 사울 왕이 가장 좋아했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만도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사울 왕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내가 더 뭘 해야 한다는 말인가?” 다윗은 집을 떠나 사울의 불안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려 수 주간 이스라엘 군대를 괴롭히던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사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중 일부는 다윗이 느꼈던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생각보다 더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모두 나를 반대하는 것 같고, 더는 걸어갈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 어떤 분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단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통해서 말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믿기 어려운 관계였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증오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왕위 계승의 권리에 따라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확고히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서로를 원수처럼 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도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중심의 참된 우정의 다섯 가지 핵심 특징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 언약적 신뢰 (Covenantal Trust)
- 단호한 충성 (Resolute Loyalty)
- 순전한 진정성 (Genuine Authenticity)
- 한결같은 격려 (Steady Encouragement)

희생적인 나눔 (Sacrificial Giving)

1. 언약적 신뢰

‘언약적 신뢰’라는 개념은 성경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8절에서도 다윗이 그 언약을 언급하며, 13절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를”이라며 그 언약을 재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 후 둘이 헤어질 때,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우리 둘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영원히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것이 언약의 언어입니다.

20장 14~15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헤세드(hesed)’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는 언약적 헌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정이나 facebook의 ‘좋아요’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헤세드’는 시련을 뚫고 나아가는 인내심 있는 사랑, 지속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그 관계의 시작부터 다윗에게 자신의 헌신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다윗의 업적을 지켜보며, 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특별한 인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고 그가 그렇게 확신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들은 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18:1). 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성서학자 로버트 개그넨(Robert Gagnon)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어 동사 qāšar(카샤르)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사람들 간의 결속을 의미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신의 운명을 다윗과 정치적, 감정적으로 묶겠다고 보증한 것입니다.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은 요나단에게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통받으면 요나단도 고통받고, 다윗이 기뻐하면 요나단도 기뻐합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헌신을 단순한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의 겹옷, 갑옷, 칼, 활, 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요나단이 준 그 겹옷은 왕실의 옷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옷을 준 것은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무기를 내어줌으로써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에게 위협이 되지 않으며, 언제든지 신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생각엔 그는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심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다윗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요나단은 반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

린 사건도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우정의 언약을 말할 때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계시기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중심의 우정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우정이 있습니까?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깊은 헌신과 신뢰가 필요하지만, 그 가치는 충분합니다.

2. 단호한 충성심

하나님 중심의 우정 안에서는 단호한 충성이 언약적 신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났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9장 초반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그의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은 친구를 변호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다윗에 대한 태도를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죄짓지 마십시오. 그가 당신께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모든 행동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잖습니까. 무죄한 그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사무엘상 20장에서는, 자신이 틀렸기를 바랐지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치려는지 알아보자고 동의합니다. 결국 사울의 진심이 드러났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충성의 대상을 분명히 합니다.

이들의 우정은 생사를 오가는 불속에서 단련된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을 때만 친구’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깐 동안만 친구로 있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금세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헌신했고, 다윗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사무엘하에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므비보셋을 찾아내어 약속대로 끝까지 돌보는 모습을 보여 줍니다.

진정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입니다. 충성스러운 친구는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 당신에 대해 험담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는 누군가가 공격할 때 나서서 서로를 지켜줍니다. 충성스러운 친구를 가진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 역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리더로서, 때로는 비난받고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대학 총장이었을 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욕을 먹더라도 진실하게 곁에 있어 준 놀라운 친구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우리를 향해, 우리가 “진심으로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3. 순전한 진정성

진정한 우정의 세 번째 특징은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실할 수 있는 능력, 즉 ‘순전한 진정성’입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관계 안에서는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에서는 자신의 감정이나 행동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사무엘상 20장을 함께 살펴보았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작별하게 되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장면이 있었지요. 성경은 심지어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까지 괴로워했을까요?

그 순간 다윗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와 이별하게 된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친구가 자기에게 충성한 대가로 큰 희생을 치르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마음속 고통을 쏟아놓고 그 친구는 당신을 이해해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비참함을 위로하고, ‘이겨내라’고 다그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당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울어줍니다. 진정한 친구란 자리를 피하지 않고 곁에 머물러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어리석은 말도 그냥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던진 말, 기억하십니까? “만일 내게 죄가 있다면, 당신이 나를 죽이십시오. 어찌하여 나를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 하십니까?” (삼상 20:8)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느껴지지요. 그 두려움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요나단과의 깊은 유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대 사회의 왜곡된 해석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오늘날 LGBTQ 운동 안에서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성적 관계로 왜곡하여, 동성 연인의 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표현된 부분이나,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삼하 1:26)라고 한 말을 근거로 삼지요.

그러나 오늘날 남성들이 친구를 묘사할 때 그런 언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언어는 시대에 따라 바뀝니다. 다윗은 단지 그들의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성경학자 로버트 개그논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단은 힘과 권력을 가진 자의 위치에서 다윗에게 반복적으로 (비성적인) 친절을 보여주었고, 그의 생명과 왕위를 희생할 각오를 했습니다. 이러한 우정은 다윗이 여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헌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두 남자 또는 두 여자가 깊은 관계를 가지려면 반드시 성적인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위대한 승리의 기쁨 속에서 시작되었고, 다윗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단련된 것입니다. 둘 다 충동적이고, 용감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목

적에 헌신한 강력한 짝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이나 요나단처럼, 동성의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4. 한결같은 격려

그들의 우정을 정의하는 네 번째 특징은 요나단의 한결같은 격려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서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려 할 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 하고, 군사들은 광야에서 그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살해자의 아들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 그를 격려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친구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요나단은 강력한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찾지 못할 것이요,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며,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그것을 안다"(사무엘상 23:17).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요나단은 그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계시다. 나는 너의 오른팔이 되고 싶." 많은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릴 때는 격려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어디에 있을까요? 잠언 27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요나단은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날카롭게 했고, 다윗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좋은 친구였습니다 – "하나님 안에서 그의 손을 강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런 친구일까요?

이 우정의 마지막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짧은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살았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도 그중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미소). 1992년, 저희가 그 나라에 도착했을 때, 전통적인 마을에서 현지 바츠와나 가족과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빠르게 그 지역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성인이 되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건 매우 어렵고 종종 창피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을에서의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듯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전통적인 '코틀라' 의자에 앉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 저도 그런 의자 하나를 사야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의자를 사기 위해 나섰고, 결국 '마리'라는 이름의 나이 많고 허름한 차림의 노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가는 흙집에 살았고, 마을에서 잔일을 하며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눌한 세츠와나어로 그의 전통 의자를 살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오히려 제가 만드는 것을 도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저는 그를 찾아가 그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에서는 제가 도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그가 저에게 세츠와나어를 가르쳐 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어느 날, 우리는 제 의자를 만들기 위해 아프리카 덩굴 속으로 들어가 나뭇가지를 찾았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나아가면서 그는 아프리카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나무를 발견하자, 우리는 조심스럽게 몇 개의 가지를 잘라 집으로 들고 돌아왔습니다.

천천히 마을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가난 속에서 자랐고, 성인이 된 후에는 남아프리카의 광산에서 수년간 일했으며,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다가 잠시 가족을 만나러 돌아오는 그런 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광산에서 그는 백인 감독들에게 욕설과 구타를 당하며 아주 적은 돈만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 말미에 남은 것은 무엇이였을까요? 건강은 망가졌고, 아내와 가족은 그를 떠났으며, 그는 남들이 버린 물건들을 고치며 생계를 겨우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가 상징하는 것—백인의 권력과 특권—을 미워할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쓰라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신다는 중요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겪은 온갖 고난을 생각하면, 저 같은 젊은 백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을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꺼이 시간을 들여 저와 함께해 주었고, 젊은 백인인 저는 격려자이자 스승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의자 하나를 함께 만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진정한 우정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와 여러 면에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시지를 볼 때마다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마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친구가 필요했고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에 마음을 열어 두십시오. 당신이 평소에는 결코 친구로 선택하지 않았을 사람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5. 희생적인 나눔

이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중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특징인 희생적인 나눔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보십시오. 성경은 요나단이 입고 있던 겔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갑옷과 칼, 활, 허리띠까지 모두 내어주었다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단순한 너그러움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 겔옷은 왕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미래를 다윗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왕위 계승자의 자리를 다윗에게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입니다 – 자신보다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요나단의 모습에 감탄하게 됩니다. 그는 주기만 했고, 돌아오는 것은 가슴 아픈 현실뿐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도 질투하거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 것을 보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희생은 진정한 우정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요나단의 희생은 저에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세례 주며 사역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자,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에 비유했습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일이 친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는 자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30)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미래의 이스라엘 왕—를 위해 자신의 권리와 권력을 기꺼이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분별했고, 큰 그림을 보았으며, 친구가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우정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직접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희생은 하나님 중심의 참된 우정의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표현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 구속, 자유, 화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은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우정을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에서 보았던 핵심 특성들을 우리 삶에서도 실천해야 합니다:

언약적 신뢰, 단호한 충성, 순전한 진실성, 한결같은 격려, 그리고 희생적인 나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라 부르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희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희생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윗은 요나단에게 보답할 수 없었고, 우리도 예수님께 보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묵상질문

1. 당신은 어떤 친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더 나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2. 요나단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세례 요한처럼) 다윗과의 우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예에서 당신의 우정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3. 당신과 예수님과의 우정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무엇이 변화되어야 합니까?